



43²⁰¹⁰
Autumn

특집 소련 및 CIS의 고려인

- 04 •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 / 김상철
1930-60년도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 23 • 초기 고려인공동체 형성연구 / 황영삼
유럽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46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베크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 성동기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69 • 연해주 한인사회를 통해 본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 / 김인성
- 92 •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в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ах постсовет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Г.Н. Ким. / 번역 성동기

논단

- 140 •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소수민족 차별 / 조흥국
- 159 •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 예동근

History of Ethnic Soviet-Kazakhstani Korean Elite ; Focused on the Visual Contents of 1930-1960 04 Kim, Sang - Cheol(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04
The Origin and Process of the Early Russian and Soviet Korean Communities ; Focused on the European Russian and Central Asia 23 Youngsarm Hw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3
The improvement of role possibility of Uzbekistan and the Uzbek-Korean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46 - According to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Sung Dong-Ki(Inha University)	46
Multicultural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case of the Korean Society in the Martime District 69 Kim In Sung (Korea University)	69
Changing Elite Group in the Central Asian Korean 92 German Kim (Kazakstan National University) trans. Sung Dong-Ki(Inha University)	92
Minority Policy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in Laos 140 Cho Hungguk (Pusan National University)	140
System Transition of China and Reconfiguration of Urban Ethnic Community in Globalization 159 - The Case of Chaoxianzu Community in Korean Town Rui Dongge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59

특 집 소련 및 CIS의 고려인



-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 김상철
- 초기 고려인공동체 형성연구 황영삼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베크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성동기
- 연해주 한인사회를 통해 본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 김인성
-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в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ах постсовет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Н. Ким.
-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경제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전 과정 Г.Н. Ким. / 번역 성동기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 - 1930-60년대 영상기록물을 중심으로

김 상 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ksc37001@hotmail.com)



I. 서론

1937년 강제이주를 계기로 형성된 시작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소련체제 붕괴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들의 고려인 문제로 변화하여, 이제는 한국과 CIS 개별 국가들 간의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및 이해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러시아 고려인 사회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은 이미 관련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지만,¹⁾ 한국의 시각은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또는 현지사회에서의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관심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한국

의 관심사에만 연관되어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변화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과 한국을 연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나 지금이나 별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²⁾

현재의 고려인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연해주 지역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변화의 과정과 현재 고려인 사회에서의 구성을 살펴볼 때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려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노년층 일부분만이 연해주에서 출생하였고, 그 이하 세대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 세대들에게는 연해주는 조상이나 부모세대의 고향일 뿐, 자신들의 고향은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이다.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에는 주로 문헌 및 문서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술사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일부 연구사례를 제외하고는 고려인의 삶을 연구자의 시각에 의해 선택된 추상적인 언어의 형태로 전달함에 따라 역사적 사실 및 문화변화 등에 대한 서술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이 아닌 일반인에게 이러한 연구 성과가 공유되기도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방송사에 의해 고려인과 관련되는 다큐멘터리가 일종의 유행처럼 제작되고 있지만, 동일 및 유사 아이템의 반복 소개, 촬영테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수의 부족으로 이들 역시 정확한 현실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고려인 관련연구들은 성공적인 현지 사회 정착 민족으로서 고려인을 부각시키고 있고, 현지에서 행해진 고려인 관련 연구들도 변화하는 고려인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보편적인 의사소통체계가 문자가 아니라 말 중심이었다는 측면, 소련체제 70년간 확립된 문서중심의 책임규명 문화를 고려해볼 때 기존의 문헌 중심, 설문지 및 인터뷰를 이용한 연구로는 고려인의 삶과 문화를 밝혀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현지의 연구 성과들이 러시아어로 발표되는 등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들이 한국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접근이나 입수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인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제작된 영상물들은 러시아어로 제작되어 언어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을 통하더라도 사실(史實)의 전달 및 활용, 내용 이해측면에서 문자매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전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 부교수

1)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가 재외동포재단의 위탁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참고해보면, 중앙아시아 고려인사회와 러시아고려인사회의 형성시기에는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고려인의 문화적인 특성 역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이후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1937년 강제이주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려인의 언어변천에 대한 연구가 일부 러시아 언어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며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연구진들에 의해 유럽러시아, 시베리아지역으로까지 연구범위는 확대되나 있지만 기초조사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관심사가 오로지 자원 및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인 이슈에만 집중됨에 따라 현지 고려인사회의 변화 문제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관련 관심범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진출의 확대를 시도하면 할수록 부각되는 문제는 바로 중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고려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수록 효율적인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달효과를 가지고 있다.³⁾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에서 제작된 고려인 관련 영상자료들 가운데 특히 고려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를 당시 상황과 결부시켜 소개를 시도하였다.⁴⁾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은 카자흐스탄 국립 영상, 사진 및 음성기록 보관소 소장 영상물로 1990년대 이전 제작된 고려인 관련 영상물들이며, 특히 카자흐스탄 경제사의 변천과 관련하여 1930-1960년대 사이에 제작된 고려인 관련 영상물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도 입수 및 복사가 가능한 것들이며, 본 연구자가 카자흐스탄 현지 해당기관의 양해를 얻어, 일부는 국내의 고려인 관련 영상물에서 몇 초 단위로 활용된 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소비에트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고려인

1. 1940-60년대 농업중심 경제와 고려인 엘리트

소련시기에 제작된 체제선전 영상물에서는 당대의 인물들 가운데 탁월한 역량을 검증받은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영상물의 주인공이 된 인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른바 엘리트에 해당되는 부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시켜볼 때 고려인을 주인공으로 다루거나 소개하고 있는 소비에트 카자흐 공화국 시기의 영상물들은 결국 소비에트 카자흐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기근과 인구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카자흐공화국에 강제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의 성공적인 카자흐 정착은 소련체제 전체로 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카자흐 공화국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과 관련된 영상물들은 1939년 최초로 제작되었고, 1940-60년대에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당시 소비에트 카자흐 공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고려인들의 농업 중심 경제활동 활성화가 서로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카자흐 국립 영상, 사진 및 음성기록물 보관소 소장 고려인 관련 영상물들의 복사물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납품되어서 국내의 관련연구자들도 조만간 직접 이 영상물들을 접할 수 있다. 이 영상물들이 소련시기의 선전물이라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물이 고려인 이외의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선동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상 자체에서는 선전 및 선동적인 요소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고려인들의 사회활동, 삶의 모습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자료의 중요성은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영상물 수집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국내의 연구자는 물론이고 현지의 고려인사회에서조차 이러한 영상물들이 제작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생존해있는 영상물의 주인공들조차 이를 모르고 있었다.

4) 본 연구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관련된 영상물 발굴 상황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고려인 관련 영상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상철, 「카자흐스탄 영상 매체에서 나타난 고려인(韓人) 역사와 이미지」, 『국제지역연구』 7권 3호,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3.

1940년대에 나온 영상물은 고려인이 벼농사에서 거둔 성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물의 제작배경은 1929년부터 실시된 강제 집단화가 초래한 카자흐스탄 기존 농업기반의 붕괴와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토착민족인 카자흐인들이 집단화를 거부하여 카자흐스탄을 떠남으로 인한 대규모 유목민 인구의 유출, 1930년대 초 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자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되어 카자흐민족의 인구는 소련체제 출범초기와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이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기반의 붕괴, 농업인구의 공백은 고려인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로 대체되었다.⁵⁾

고려인의 대부분은 집단화과정에 의해 기반이 붕괴되어 버린 농촌지역이나 기존에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이주 되었다.⁶⁾ 목불농사에는 부적합한 지역에 대부분 정착한 고려인들은 벼농사 재배를 위한 집단농장을 형성하여 강제이주에서부터 채 2년이 안 되는 시점부터 벼농사에 성공하였다.⁷⁾ 소련중앙정부 및 카자흐공화국의 입장에서 이는 강제이주 민족의 성공적인 정착사례라는 측면과 농촌지역 집단화로 인한 생산 증대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게 되었다. 아울러 1941년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 참전하게 되면서 전시 총력생산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고려인들이 벼농사에서 세계기록 차원의 쌀을 생산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군수물자 구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⁸⁾ 소련중앙정부나 카자흐공화국은 전시체제에서 제 집단들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고려인 집단농장의 성공 사례를 널리 선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의 전후 복구과정과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전력을 쏟게되면서 고려인들은 특히 콜호즈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70년대초까지 67명의 고려인-카자흐인 콜호즈 인물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1946-55년 사이에 60명이 소련최고소비에트 최고회의의 결정으로 표창을 받았다.⁹⁾

카자흐스탄의 자연 및 기후환경을 고려해볼 때 역사적으로 벼농사가 가능했거나 벼농사

5) 소련체제 출범당시 카자흐공화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자흐인의 숫자는 대략 300만명 수준이었는데, 1939년에 이는 거의 15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유목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1929년 120만호가 넘었던 농가는 1934년에 57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Martha Brill Olcott, *The Kazakh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pp. 181-184.

6)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지역별 정착 숫자는 남카자흐스탄 지역에 약 8700가구, 북카자흐스탄지역에 5100여가구, 서카자흐스탄지역에 1300여가구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수치는 관련문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ГАРФ. Ф. Р-5546. О п. 1. Д. 57. Л. 121.

7) 이외에도 러시아 아조프해에 면한 아스트라한 감자토프 지역(당시는 스탈린그라드주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아스트라한주에 포함됨), 카자흐스탄의 발하쉬 호수에 면한 발하쉬 지역, 카스피해 연안의 구리예프(현재명 아티라우)지역에는 극동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되었다. Пак В. Д., Бугай Н. 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просвещ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4. с. 265.

8) 카자흐스탄 우슈토크 카라탈구역 「달리보스톡(극동) 집단농장의 신행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방위성금으로 12만 루블을 납부했고,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불세비키 집단농장 역시 35만 루블의 방위성금과 10만5천루블의 방위채권을 구입하고, 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물품을 방위품으로 납부하였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집단농장들에서도 1943년 방위성금으로 700만루블을 납부하였다. 김승화, 「소련한족사」, 정태수 역., pp. 232-240.

9) Ким, Г.Н., Мен Д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Гылым, 1995).

가 이루어졌던 곳은 쉘켄트주와 크즐오르다주를 흐르는 스크다리아 연안, 알마티주의 카라탈강, 일리강, 텐텍 강 근처로, 이 지역에 고려인 이주민 콜호즈들이 건설되어 벼농사는 카자흐스탄의 곡물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30년 카라탈구역에서는 몇십 헥타 정도의 농경이 이루어졌는데, 1939년에는 벼농사 면적이 2300헥타, 1941년에는 5000헥타까지 면적이 확대되어 갔다. 카자흐스탄 전체로는 1946년 벼농사 면적이 3만헥타 였는데, 20년이 지난 1966년에 이는 5만헥타로 확대되었다.¹⁰⁾

고려인 농장들은 대략 46헥타에서 80센트네르를 생산하였는데, 특히 이 가운데 두드러진 곳은 크즐오르다주 칠리구역에 위치한 아방가르드 콜호즈로, 고려인 사회주의농업영웅 칭호를 받은 김만삼이 있었던 이 곳에서는 10헥타의 면적에서 150센트네르를 생산하고 있었고, 그의 지도를 받은 카르막치 구역 차빠예바 콜호즈의 툴레바이 타즈바예프와 이브라 김 사이메노프 역시 고려인 농장들의 생산규모에 맞먹는 수확량을 보였다.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기 고려인들이 보여준 벼농사에서의 성과는 전쟁 이후 이루어진 포상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¹¹⁾

〈표 1 : 크즐오르다지역 고려인 콜호즈의 1941-45년 년도별 헥타 당 생산량〉

농장명	년도(헥타당 생산량)				
	1941	1942	1943	1944	1945
아방가르드	270	640	857	857	1001
볼세비크	250	500	703	820	905
기간트	260	500	600	830	915
인페르나찌오날	240	500	600	830	1020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직후 고려인들의 벼농사 방식은 연해주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1930-40년대의 고려인 콜호즈는 농업기계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부를 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지만, 1950-6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기계의 적극적인 도입 등 변화가 나타났다. 트랙터를 도입함으로 인해 경작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증가한 경작면적에 대해 효과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 콤바인 등이 도입되었다. 벼농사 기계화는 크즐오르다주 얀니-꾸르간지역 “끄라스나야 즈베즈다”의 마을에서 1950년 최초로 시도되었다.

단일경작작물인 벼는 같은 곳에서 계속 재배하는 경우 3년차에서 지력 고갈로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위해 카라탈지역과 크즐오르다 지역에서는 윤작을 실시하

여, 다년생 풀, 옥수수, 곡물 및 채소 등을 교대로 재배하였다. 이러한 윤작실험의 결과 크즐오르다 지역에서는 1950년대 중반 헥타당 26첸트네르의 생산량을 48.3 첸트네르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¹²⁾ 카라탈지역에서는 농학박사인 황 A. I.의 생산량 증대 노력에 의해 헥타당 45첸트네르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러한 실험의 성과는 1960년대초 논문으로 발표되었다.¹³⁾ 아울러 벼품종 개량에도 나서서 논 밀집지대에 적합한 품종과 황무지 지대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되어, 실제 벼농사에 적용되었다.¹⁴⁾

벼의 대량재배를 위한 시도들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모내기 및 이후의 관리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고려인들이 당시의 농업 지식인으로 연방차원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¹⁵⁾ 1950년대초까지 벼수확은 대부분이 낫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늘어나는 농업규모를 고려할 때 수확 역시 기계화가 요구되어, 1950년대에 벼농사 기계화에 대한 실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1960년대 중반 크즐오르다 칠리구역 기간트 콜호즈에서 모내기를 제외한 벼농사 전반에 대한 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이후에는 농업에 종사하던 고려인들의 급격한 도시 이주로 벼농사에 종사하는 집단의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 고려인이 지배적이었던 인력구조는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벼농사 중심 농업구조도 배추, 양파, 마늘, 무, 오이 같은 채소작물로 다변화되기 시작했고, 사탕무우 및 채소 등 쌀 이외의 작물 생산량의 증대는 고려인 노동영웅들의 증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¹⁶⁾ 1960년대 초 우슈토페가 속한 카라탈구역의 양파 생산은 카자흐스탄 전국소요량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벼농사에 이어 양파농사의 중심으로 부각되었고, 콜호즈에 따라 특화되어 있었던 고려인 콜호즈에서는 1950년대 중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직후 고려인들의 벼농사 방식은 연해주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12) ГАК-ОО, ф. 293, о п. 2, л. 31, л л. 1-7.

13) Ленин Кичи, 1966, 14 мая.

14) 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알마티주에서 카라탈86-79 품종이, 크즐오르다주에서는 둥간살르, 두보비스키 129, 황무지 지대에서는 크즐오르다주에서 페르보마이스키 152품종, 크라스노다르 3352, 탈디쿠르간주에서 UZROC 269 품종등이 재배되었다. Ким, Г.Н., Мен Д.В., указ. соч., сс. 129-130.

15) 크즐오르다주 카라막치 구역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의 심덕수, 남 알렉세이, 김 알렉세이, 크즐오르다주 칠리구역 아방가르드 콜호즈의 사회주의 노동영웅 김익세, 김익학, 김찬덕, 기간트 콜호즈의 한 영호, 김 마트베이, 최 포트르, 스크다리아 구역 잠블명칭 콜호즈의 김포트르 등은 1952-1955년 전소련연방 농업전시회에 매년 연속으로 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 Там же.

16) 우슈토페가 위치한 카라탈 구역의 1945-65년 감자, 채소 및 양파 생산량 추이를 보면 1946년에는 생산이 전무했던 감자가 1965년에는 상당량 생산되었고, 채소는 1965년에는 1946년 생산량 기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양파는 49배 증산되었다. 이러한 쌀 이외의 작물 재배 성과로 이 시기에 고려인 5명이 사회주의 노동영웅이 되었고, 8명이 레닌훈장을, 13명이 붉은혁명 훈장을, 39명이 메달을 수여받았고, 홍봉식, 김광운, 김 F. N, 김주남, 남동희 등이 이끄는 작업반들이 대표적이다. Там же., с. 132.

10) Там же., с. 127.

11) 고려인 정착촌 우슈토페가 속해있는 카라탈 구역에서는 1946-47년에 3,861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고려인이 1,000여명 이상이였다. ГАК-ОО, ф. 1304, о п. 1, с в. 4, л. 11; л. 11-а.

반 채소농사 및 밭농사를 통해 부수입을 가지게 되었다.¹⁷⁾ 남부지역과 기후여건이 다른 중부와 북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된 고려인들 역시 채소재배와 함께 감자 재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전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전통적인 벼농사와 함께 채소 및 각종 식량 작물 재배에 있어서 생산 및 재배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농업중심 카자흐스탄 경제에 기여하였고, 당시의 엘리트로 부각됨에 따라 1960년대까지 고려인 엘리트를 다루는 영상물들은 이들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농업기계화에 따라 농업기계 운용의 중심에 있었던 MTS(트랙터 운용 및 유지관리센터)에서 종사하는 고려인 전문 기술자들 역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다.¹⁸⁾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1954년에는 우수토베 MTS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최우수 MTS로 뽑히기도 했으며, 우수토베 MTS에 소속되어 있던 허봉학, 채태원, 최필무, 최 스테판, 한하순은 1956년 카자흐공화국우수 콤파인 기사로 선정되었고, 김동국과 김 A.G.는 우수 트랙터기사로 선정되었다. 우수토베 외에도 고려인들이 밀집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의 MTS들은 농업생산 증대가 강조되면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1950년대초에 들어와서는 콜호즈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콜호즈 규모를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미약한 소형 콜호즈들이 통합되거나, 대형 콜호즈에 흡수되는 조치가 이루어져, 1950년 1월 6,737개였던 카자흐 공화국의 콜호즈 숫자는 1951년에 3,670개로 감소하였다. 크즐오르다주에서는 1951년 88개의 콜호즈들이 1957년 65개로 감소하였다.¹⁹⁾ 전반적인 방침은 벼농사 중심의 고려인 콜호즈와 가축 사육 중심의 카자흐인 콜호즈를 합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칠리구역의 ‘기간트’ 콜호즈에 ‘5월1일’ 콜호즈가 흡수되었고,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코문’, ‘악토베’, 콜호즈를 흡수하였다. 같은 크즐오르다주의 스킨다리아 구역에서는 고려인 콜호즈인 ‘포베다’, ‘오고로드닉’, 이 카자흐인 콜호즈인 ‘타스 아트’, ‘장아 투르미스’ 콜호즈와 합병되었다.²⁰⁾ 이러한 다민족 거대콜호즈로의 체계 변화는 우수토베가 속해있던 탈디쿠르간주에서도 이루어져 1947년 카라탈 구역에 존재했던 15개의 콜호즈는 1952년이 지나면서 8개로 감소하였다.²¹⁾

이러한 대형 콜호즈의 출현은 콜호즈 구성원이 다민족으로 편성되는데 기여를 하였는데, 전통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고려인,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러시아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유목민의 전통적인 가축을 사육하는 카자흐인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들의 전통이나 습관, 노동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었고, 이는 특히 1960년대 이후 고려인 젊은세대의 도시 이주로 감소한 농업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기술 인력을 카자흐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채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농업분야 고려인 엘리트 및 영상물

1940년대 고려인 엘리트는 결국 당시의 카자흐스탄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농업증산에 나서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우수 농업인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당시 카자흐스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에 소개된 인물군들이 바로 당시의 고려인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이 집단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부각되었다. 1940년대에는 크즐오르다의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이 빈번히 소개되었고, 1960년에는 역시 같은 크즐오르다 지역에 위치한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이 소개되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려인의 모습을 다룬 영상물도 다수 제작되었다.

1946년 제작된 ‘크즐오르다주 칠리구역 고려사람(韓人) 집단농장 아방가르드(선봉) 특집’은 1940년대의 고려인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영상물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집 영상물이다. 이 시기 고려인과 관련된 영상물이나 아방가르드 농장을 다룬 다른 영상물은 대부분 1-2분 정도의 짧은 소식 전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방가르드 농장 특집편은 30분 정도 길이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농사, 집단농장의 설립 및 변천사, 집단농장내의 한국어 중등학교, 농장장 김만삼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벼농사 과정, 현지의 카자흐인과 협동작업을 하고 있는 농장 가축작업반, 수확된 벼의 국가납부 장면, 집단농장의 전체 총회 모습, 집단농장에서의 여가생활, 가을걷이 후의 결혼식 및 축제, 가을걷이 축제에 출연한 탈디쿠르간 주립 고려극장 공연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1940년대에 활성화된 고려인집단농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²²⁾ 이외에도 아방가르드 집단농장과 김만삼에 대해서는 수 차례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42년으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추수, 벼농사전문가 김 만삼(1942)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1948년에는 아방가르드 농장 도정공장 및 문화회관 건설을 소개하고 있다.

크즐오르다에서 벼농사를 하는 고려인 집단농장들이 4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으로는 거의 황무지이다시피했던 지역에서 벼농사를 성공시킨 점, 1930년대 초반의 강

17) 남카자흐스탄주의 ‘공산주의의 길’ 콜호즈는 1955년 수입이 1951년 수입의 4배에 달하고 있었고, 고려인 목화재배 콜호즈였던 ‘제3인터내셔널’은 1951-1953년 사이에 부업인 채소 재배등을 통해 30만루블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었다. Там же., с. 134.

18) 대표적으로 김 P. S., 최필무, 이 F. I., 방 M. I. 등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고, 이외에도 48명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19) ГАК-00, ф. 585, оп. 2, д. 582, л. 27; оп. 2, д. 654, лл. 3-6; оп. 4, д. 135, лл. 18-20.

20) ГАК-00, ф. 283, оп. 4, ед. хр. 31, 35, 41, 75, 148, 173.

21) ГАТ-КО, ф. 1102, оп. 1, св. 5, д. 34, л. 24; там же, оп. 1, св. 3, д. 50, л. 35.

22) 아방가르드 농장은 벼농사 전문가인 김만삼의 지도아래 1942년 쌀수확에서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헥타르당 15톤 이상을 수확하는 등, 높은 수확고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벼농사에 있어서 아방가르드 농장의 놀라운 성과로 소비에트 정부는 1946년 농장장인 김만삼에게 국가장려금을 수여하였고, 1948년에는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제집산화로 인한 이 지역에서의 농업생산 및 인구의 공백을 메우고 카자흐스탄 벼농사의 중심지대로 변모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벼농사 중심인 고려인 집단농장인 아방가르드, 제3인터내셔널, 기간트, 카자흐스탄 설립 18년명칭 콜호즈가 주로 영상물의 촬영 대상이 되었다.²³⁾

〈표2 : 농업분야 관련 영상물 목록〉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42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수확과 김만삼	최초 소개 영상물
1946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선봉) 집단농장	20분 정도로 특집편
1948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벼 수확과 김만삼	
1948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방가르드 집단농장 농업영웅 김만삼이 알마티의 농업성과보고대회 참석	1948년 카자흐스탄 농업보고자대회 참석
1949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농장 문화회관 건설	
1950	카자흐스탄-크즐오르다	아방가르드 농장, 벼농사전문가, 사회주의 노동영웅 김만삼	김만삼의 2차 서훈
1952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공동농장장 박 알렉세이 A.	농사준비 소개
1957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채정학	농장 및 농장장 소개
1957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공동농장장 박 알렉세이 A.	젊은이들과의 대화/ 농사성과 소개
1958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옥수수 재배 전문가 강주현	옥수수 재배에 관한 강연모습
1959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벼농사 전문가, 노동영웅 김만삼	1950년대 모습 소개
1960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달리보스톡 농장장 사회주의 노동영웅 신형문	우슈토베의 농업지도자 신형문 및 활동 소개
1960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기간트 콜호즈와 농장장 김 E.	
1962	카자흐스탄 첼리노그라드주	카자흐스탄 설립 18년명칭 집단농장 농장장 박대한	밀 농사지역 고려인
1963	카자흐스탄 침켄트주	공산주의의 서광 집단농장 기계작업반 반장 이. N.	남부 벼농사지대
1963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농업지도원 김승학	
1963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첼리니 집단농장 전 농장장 박 알렉세이 안드레이비치	밀 농사지역 고려인 농업영웅
1965	카자흐스탄 첼리노그라드	유가공 공장 수석 엔지니어 최유리 알렉세예비치	유가공 공정개선 활동 소개
1970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10월혁명 40주년 콜호즈 농사전문가 전영화	우슈토베
1970	카자흐스탄 알마티	농업과학자 황 A. I.	
1981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우슈토베 및 탈디쿠르간지역 쌀 생산자 회의	우슈토베 고려인 벼농사 종사자 총회

23) 1937-1970년 사이의 카자흐스탄에서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고려인은 잠불주 3명, 크즐오르다주 32명, 쿠스타나이주 1명, 탈디쿠르간주 26명, 침켄트주 4명, 첼리노그라드주 1명이다. 즉 전체 고려인 노동영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크즐오르다에서 나왔다.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 казахстанцы," Алма-Ата т.2 с.407, 712-716, 606-707, т.3 с.207, т.4 с. 227-228, 213, 417, 569, 607,709,720-726; Ким, Г. Н., Мен Д. В., у каз соч., сс.206-207.

1952년에는 카자흐스탄 서북부 밀농사 지대인 쿠스타나이주(州)에서 공동농장 농장장을 맡고 있는 고려인 노동영웅 박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비치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영상물은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약 4,000명의 고려인이 강제이주된 이 지역에서 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강제이주 당시 곡물농사 지대로 이주된 고려인들은 벼농사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주된 지역에서 특화된 기존의 농업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박 알렉산드르와 관련된 영상물은 1957년, 1963년에 다시 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이후에는 크즐오르다의 칠리구역에 위치한 아방가르드 집단농장 대신 크즐오르다 카라막치 구역에 위치한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에 대한 영상물이 빈번히 제작되었다.²⁴⁾ 대표적으로 1957년에 제작된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 채정학' 편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벼농사 중심 고려인 집단농장 가운데 하나인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의 농장장인 채정학을 소개한 영상물이다. 1960년대에도 제3인터내셔널 집단농장에 대한 영상물이 세 차례 더 제작되었는데,²⁵⁾ 이 시기에는 집단농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농업 전문직 고려인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1960년에는 크즐오르다 지역과 함께 고려인들이 다수 정착한 최초도시인 우슈토베에서 고려인 벼농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달리보스톡(극동) 집단농장 농장장 신형문'에 대한 영상물은 달리보스톡 집단농장의 탈곡시설, 도정공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부지역에서 밀농사에도 종사하는 고려인의 모습도 영상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²⁶⁾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농업종사 고려인에 대한 영상물 감소현상은 당시 소련이 처했던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53년 스탈린 사망이후 새로운 소련지도자가 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시기의 산물로부터 철저한 탈피를 시도하였다. 농업 및 경제 발전의 부각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주도하에 카자흐스탄 북부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진행된 밀 농사지역 확대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치녀지 개간운동'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소련사회에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된 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유럽러시아에 거주하던 러시아계 민족들이다.

이들은 당의 과전 또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대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지대

24)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크즐오르다시에서 남쪽으로 140킬로미터 떨어진 칠리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는 크즐오르다시에서 북쪽으로 200킬로미터 떨어진 카라막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도 아방가르드 콜호즈는 접근이 자유로운 반면,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는 카라막치 구역내에 바이코누르 우주발사기지가 있어, 외국의 출입이 제한되는 관계로 외국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25) 1997년 고려인 강제이주를 기념하여 고려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제작한 '제2의 고향' 다큐에서는 당시의 제3인터내셔널 콜호즈 상황, 채정학 기념관을 소개하였다.

26)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1950년대 쿠스타나이주의 고려인 노동영웅이었던 박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비치에 대한 영상물로 1952년과 1957년 두 차례 영상물 기록이 남아 있다.

확대의 성격을 지닌 '치너지 개간운동'의 중심세력이 되었다.²⁷⁾ 또 다른 부류는 제2차 세계 대전중의 강제이주로 인해 거주지제한을 받고 있던 독일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이들은 스탈린 사후 거주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베리아 오지의 강제이주 지역을 떠나 치너지개간운동으로 농업인력의 수요가 대거 필요했던 카자흐스탄 북부로 이주하였다.

소련정부 및 카자흐공화국 당국은 농업생산의 확대 측면에서 이러한 집단들의 농업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전역에서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카자흐공화국(카자흐스탄)의 선전영상물 제작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이미 성공한 고려인의 벼농사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물 제작편수의 감소로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이러한 운동이 벌어졌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을 담은 영상물이 제작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벼농사가 아닌 밀농사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이 그 대상이었다.

III. 비농업 분야 고려인 엘리트와 영상물

1. 고려인의 카자흐스탄 경제발전 기여 : 비농업분야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에는 1938년 3월 시점에서 3,530가족의 비농업(주로 공업 및 공업관련) 분야 고려인 가족들이 지역별로 분산 정착되었다.²⁸⁾ 고려인 어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446가구가 알마티주 발카쉬 호수 인근지역에, 크즐오르다주는 338가구가 이랄해 연안 지역에 배치되었고, 구리에프(현 아티라우)주는 카스피해 인근 지역에 571가구가 배치되었다.



강제이주 이후의 국가정책에 의해 비공업분야 종사 인력이 공업분야로 종사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군으로 징집되어 카라간다 지직의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여 되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카라간다 탄광에는 37,544명의 여러 민족 출신 광부들이 노동군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고려인이 2,141명 포함되어 있었다.²⁹⁾

경제건설시기에 고려인 이주민들은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접도시나 지역 마을에 설치된 공장에 집단적으로 고용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에는 “고려인”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가 크즐오르다에 1950년 건설된 고무공장으로 전체 78명의 직원 가운데 40명이 고려인이었으며, 카라탈 구역 우슈토베의 ‘10월혁명 20년’ 협동조합은 조합원 56명 가운데 43명이 고려인이었고, 침켄트의 ‘달리보스토치니’ 공업협동조합은 51명 가운데 27명이 고려인이었다.³⁰⁾ 이러한 고려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업협동조합이나 콤비나트들은 1960년대초반까지는 해당 기업소나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려인의 비율에 따라 이른바 ‘고려인’ 기업소로 불리었다. 고려인 남성들은 주로 금속관련 공장이나 건설관련 기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고려인 여성들은 봉제공장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려인 기술자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의 작업역량에 대해서는 탁월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1957년 크즐오르다주 공업위원회에는 22개의 작업 합리화 제안이 고려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20개는 상당한 경제적 절감효과를 내기도 했다.³¹⁾

1960년대 초반 조직화와 구조화가 카자흐스탄 경제 메카니즘 개선을 위해 도입되면서 이른바 조합단위 기업소가 철폐되기 시작했다. 변화된 환경에 어울리는 형태로 조합도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카자흐스탄의 공업화는 개별 민족별 및 직업별 구분이라는 과거의 구조를 탈피하였고, 이러한 공업화로 가는 국면에서 고려인들은 공장 기술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직업군은 바로 고려인 광부들로, 생산량의 초과달성으로 영예 칭호를 받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³²⁾ 이들은 대부분이 원래 숙련 광산 기술자 출신이 아니었고, 노동군에 징집되어 광부로 종사하게 되었는데, 20년 이상 종사하게 되면서 광산의 책임자로 까지 승진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였다.³³⁾

조직화와 높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고려인들은 고려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공장이나 공업시설에서 전문직 기술자나 책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고려인이 집중거주하고 있었던 우슈토베 및 크즐오르다와 그 인근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이루어낸 전문직 종사인력들의 수적, 질적 우위는 이 지역 공장이나 콤비나트에 대한 우수한 평판으

27) 제정러시아 말기에 청년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일종의 ‘브 나로드’ 운동의 1950년대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유럽 러시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슬라브 청년세대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28) 1938년 12월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악쉴빈스크주 157 가구, 카라간다주 687가구, 서카자흐스탄주 182가구, 알마티주 621가구, 남카자흐스탄주 334가구, 크즐오르다주 1,625가구, 쿠스타나이주 445가구, 구리에프(아티라우)주 277가구 등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Ким, Г. Н., Мен Д. В., указ. соч., с. 141.

29) Там же., с. 142.

30) Там же.

31) 특히 손 I, 지문선, 최 K, 문병우, 최성학등은 신기술 제안 등을 통해 두드러진 기여를 한 인물들이다. Там же., с. 143.

32) ‘스탈린탄광’에서 16년간 광부 생활을 한 김학수는 생산규정량의 133%를 채굴하여 “영예광부” 칭호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키로프탄광’ 황 A., ‘악쉴빈스크탄광’ 최 B., ‘하바이탄광’ 민문식, 김 O.B., 강 A. H., 최기현, 김경호, 김 H. G., 김삼섬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3) 강 A. N.은 ‘악쉴빈스크탄광’ 33호, 34호 갱도 책임자였는데, 1960년대 초반 매월 2만4천톤에서 2만5천톤 정도를 채굴하였는데, 이는 당시 다른 갱도 평균 생산량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당시 카라간다 탄광콤비나트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었다. Ким, Г. Н., Мен Д. В., указ. соч., с. 145.

로 이어져 카자흐스탄 전국이나 또는 소련 전체 차원에서 소개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³⁴⁾

강제이주 직후의 쉽지 않은 카자흐스탄 정착과정을 거친 고려인들은 이후부터 당대의 국가경제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중요성에 따라 국가경제체제의 일환으로 통합되었으며, 특히 농업분야는 전통적인 벼농사에서부터 채소, 옥수수 등의 다양한 작물 경작에 있어서 그 성

과를 널리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 농업분야에서도 당시 광물 채굴 중심이었던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에서

소련 전역에서 고려인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났고, 러시아에서 현재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전문인 중심 고려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광업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했음을 영상물은 입증하고 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약18만명의 고려인이 강제이주를 당하였는데,³⁵⁾ 이러한 강제이주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1959년 소련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고려인 숫자는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약13만9천여명으로 증가한 반면, 카자흐스탄은 7만4천여명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³⁶⁾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초기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크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강제이주 직후 여러 요인으로 인한 1937-38년 유아세대의 높은 사망률,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군으로 고려인 젊은이들이 많이 복무하게 되면서 나타난 희생으로 인한 젊은 남성 고려인들의 감소³⁷⁾, 셋째 1950년대 중반 많은 고려인 젊은이들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및 유럽러시아의 공업중심 도시로 유학 및 이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다른 지역 이주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흐루시초프 집권 이후 회복된 거주이전의 자유, 강제이주 1세대의 기성세대들이 강제이주 이후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룩한 경제적인 기반 확립을 들 수 있다.

강제이주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젊은 세대로 성장한 세대들의 이주는 전반적으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간에 상이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주로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로 유학차 이주한 경우가 많으며³⁸⁾, 카자흐스탄에서는 유럽러시아의 공업중심도시(키예프나 하리코프 등) 및 카자흐와 인접한 시베리아 공업도시들로 많이 이주하여, 러시아 각지에서의 고려인 사회 형성은 이러한 이주의 결과가 반영되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권 소련지역에서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제이주 당시 어린이에 불과했거나 강제이주 직후 태어난 세대들이 김만삼, 채정학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세대의 경제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나 전문직 진출을 위해 농촌에서 수도인 타쉬켄트와 알마티, 러시아의 주요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또한 소련 전역에서 고려인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났고, 러시아에서 현재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전문인 중심 고려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³⁹⁾ 좋은 농업환경을 찾기 위해 러시아남부나 러시아 북카프카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으로의 농업이주도 시작되었다.

또한 강제이주 당시에도 농촌과 도시 거주민의 비율에 있어서는 농업중심의 남부지역과 공업중심의 북부지역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은 남부와 북부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제이주 당시 남부로 이주된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촌지역 거주민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카라간다와 쿠스타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공업중심 지역으로, 강제이주민 역시 공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1959년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탄광 및 공업시설이 많았던 카라간다주 지역은 도시거주민이 10,978명, 농촌 거주민이 1,056명으로 도시거주민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반면 알마티주(당시에는 딸픽쿠르간주가 포함되어 있었음)는 도시거주민의 비율이 6,180명, 농촌 거주민이 14,321명이었다. 킴켄트주의 경우에도 도시거주민은 2,189명인 반면, 농촌거주민은 6,539명이었다. 반면 크즐오르다주는 도시거주민 9,235명, 농촌거주민 5,065명, 잠블주는 도시거주민 3,331명, 농촌거주민 2,152명이었지만, 이 지역의 도시들은 농업 중심도시들임을 고려한다면, 남부지역에 속하는 이들 지역 역시 농촌거주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⁴⁰⁾

34)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우슈토베 기계수리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은 소련 및 카자흐공화국 박람회 농업기계 분야에 참가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Там же., с. 146.

35) 카자흐스탄에 98,454명(20,789가구)이 강제이주되었으며, 우즈베크로는 74,500명(16,307가구)가 강제이주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카자흐스탄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책에 수록된 1938년 2월 문서를 참조. Глеу Кульбаев, Аркадий Хегай,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б устройстве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Депортация, Алматы, Данекер, 2000., с. 63;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대해서는 박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재소한인의 강제이주약사,"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 1992., p.1271.

36) 카자흐 고려인의 숫자는 1970년에는 81,598명, 1979년에는 91,984명으로 증가하였고, 1989년에는 100,739명, 1999년에는 강제이주 당시와 비슷한 99,665명이었다. Ким Г. Н.,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Наука, 1989., с. 24; Пак А. Д.,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2002., с. 7.

37) 고려인들은 전선으로 투입되지 않고, 후방의 탄광, 목재소, 도로건설, 개간사업, 군수물자 공장 등 전선의 생산현장에 노동인력으로 투입되어, 산업생산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명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다. 김승화, op.cit., pp. 232-236; 김 표트르, "우즈베크 공화국 한인의 사회정치적 위상," 『박영석 교수 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1992, pp. 1293-1294.

38)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사회는 우즈베크 출신 고려인과 그 자녀세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바람. 방일권,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 13집, 2000.

39) 이러한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 바람. 방일권,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 13집, 2000;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문화변화," 『국제지역연구』 제 4권 4호, 2000; 황영삼, "모스크바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 13집, 2000.

40) Ким Г. Н. (1989), указ соч., с. 18-20.

2. 1960년대 비농업분야 고려인 엘리트 영상물

1940-60년대사이에 영상물의 주종을 이루었던 분야는 농업이었는데, 비농업 분야 고려인을 소개하는 영상물은 1939년에 제작된 ‘알마티주 중등학교 우수교원 이 E’에 대한 것으로, 그녀는 당시 알마티의 중등교육기관에서 러시아어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는데, 강제이주 이후 정착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 시기에 이주한 경우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고려인 전문직업인을 소개하는 영상물은 1960년대 이후 보편화되었다. 전문직으로 진출한 고려인으로 가장 빈번히 영상물에 비취진 경우는 1961년부터 1974년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장관 지낸 김 일리야 루키치이다. 이외에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에서 소련대표로 나온 김 벨리에 대한 영상물도 2회 제작되었다.

1961년에는 벼농사 이외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이 소개된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항해, 우즈벡-카자흐간 화물선 선장 이 도하’ 편에서는 현재는 사해가 되다시피한 아랄해의 1960년대 모습과 함께, 아랄해를 항해하는 화물선 선장 이도하의 모습이 소개되었으며, 이도하에 대한 영상물은 1963년에 한 차례 더 제작되었다. 또한 1961년에는 ‘카자흐공화국 최고소비에트 회의’ 편 영상물을 통해 당시 카자흐공화국 재무부장관인 김 일리야 루키치의 연설 모습과 발언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김 일리야 루키치는 이후 그가 재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1974년까지 거의 매년 영상물에 등장하고 있다.⁴¹⁾

1964년에는 전문인력 고려인으로 엔지니어인 최 야곱 P.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영상물에서는 지질탐사 장비 제작 등 공업관련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아울러 같은 해에는 고려민족극장 배우로 당시 데뷔 30년을 맞이한 카자흐공화국 인민배우 김 진의 ‘데뷔 30주년 축하’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 필름에는 연해주 고려민족극장에서 배우로 데뷔하여 강제이주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어를 100% 구사한 작가, 연출가 겸 배우인 김 진의 모습이 남아있다. 1965년에는 수영선수로 활약한 고려인을 찍은 ‘켄타우 수영대회 우승자 최 M.’ 편이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남부 켄타우에서 열린 카자흐공화국 수영대회(다이빙)와 대회 우승자들을 소개한 영상물이다. 이외에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소련체조 선수로 출전한 ‘김 벨리’, 1984년에 제작된 소련 북상국가 대표 공훈 트레이너 ‘최 유리’ 등이 카자흐스탄의 운동관련 영상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고려인들이다. 1977년에는 ‘고려(韓人)극장 성악가 김 블라지미르 독창회’가 제작되었다.

〈표3 : 전문직 종사 고려인 관련 영상물 목록〉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39	카자흐스탄 알마티	새학기가 시작되다, ‘알마티주 중등학교 우수교원 이 E’	고려인 러시아어 교원
1959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이운호- 탈디쿠르간 카라탈강 도강선의 선장	우슈토베 인근 하천 도강선 운항 고려인
1961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운항 우즈벡-카자흐간 화물선 선장 이 도하	환경파괴 이전의 아랄해 풍경
1961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제8차 최고소비에트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3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제10차 최고소비에트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3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화물선, 부타코프호 선장 이도하	아랄해 모습
1964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제11차 최고소비에트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4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질탐사 엔지니어 최 야곱 P.	최 야곱 활동상황
1964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1964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5년도 국가예산보고
1965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1965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6년도 국가예산보고
1966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제6기최고회의 9차회의에 참석	국가경제관련 보고
1967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1967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8년도 국가예산보고
1967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체르다라 건설사업소 소장 조 게르만	건설사업소와 조 게르만 의 활동
1968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1968년 최고소비에트회의에 참석	1969년도 국가예산보고
1970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제7기 최고회의의 관련 연설	제7기최고회의 국가경제활동보고
1970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 일리야 루키치 카자흐재무장관 제24차 최고소비에트회의 참석	경제관련 보고
1971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재무부 장관 김 일리야 루키치 국가예산에 대해 연설	국가경제 보고
1973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재무부 장관 김 일리야 루키치 제8기최고회의 4차회의참석	국가경제보고
1974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공화국 재무부 장관 김 일리야 루키치 제8기최고회의 6차회의참석	국가경제보고

1960년대 이후 영상물들에서는 소련 전체사회나 카자흐공화국내에서 공헌한 개인을 부각시키는 필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은 영상물을 통해 초기에는 ‘농업전문가’의 이미지로,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농업전문가 이미지로 다루어지던 1940-60년대보다는 고려인 관련 영상물의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이전과는 달

41)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매년 고려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작고한 유명 고려인 학자 및 엔지니어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계 전공 학생들에게는 유명한 고려인 수학자인 ‘김영환 장학금’을 인문사회계 전공 학생에게는 경제학자이면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 일리야 루키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리 다양한 분야로 고려인의 진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고려인만 영상물에 기록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표4 : 기타분야 고려인 관련 영상물〉

제작년도	대상지	내 용	특 징
1990	카자흐스탄 탈디코르간 (우슈토베)	최필무의 가족 : 1937년 강제이주된 사회주의 노동영웅 최필무의 가족 및 우슈토베 고려인 사회.	1990년대 우슈토베 풍경, 수로 등 990년대 고려인 사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음.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지에서의 제사 등
1990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라간다	돌린카 마을의 운명-1 강제이주민족탄압기(1938-1948) 카라간다주 '돌린카' 마을	강제이주민족 탄압시기의 기억
1990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라간다	돌린카 마을의 운명-2 강제이주민족탄압기(1938-1948) 카라간다주 '돌린카' 마을	현재의 돌린카마을 모습과 추모비
2002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라간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민영 라하트 TV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유리 추모 영상물	원본은 민영 방송을 통해 카자흐전역에 방송됨
2003	카자흐스탄 알마티 민영 31 채널 TV	카자흐스탄의 100민족-고려인 윤 세르게이 그리고리에비치	현재 생존해있는 우슈토베 출신 농업 노동영웅 윤 세르게이의 삶과 가정, 고려인 문화 소개

IV. 결론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역사 140주년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 이주는 현재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러시아 고려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고려인의 역사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이룩한 성공적인 정착의 역사는 현지의 영상물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영상물은 시대 및 주제에 따른 고려인 역사의 변화를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한 영상물은 강제이주 이후인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상물들은 대략 1940-60년 사이에는 거의 매년 주요 인물이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집단농장을 다루고 있었으며, 주로 농업과 관련된 영상물들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에는 농업분야 이외에 전문직인 엔지니어, 체육, 문화계에서 활동한 고려인들에 대한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소련체제 말기라고 할 수 있는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고려인

과 관련된 영상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990년에 개별민족의 자주성이 강조되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강제이주를 직접 다룬 영상물이 제작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려인문화와 관련을 가지는 기관이라 할수 있는 방송, 신문사, 극장은 강제이주 이전의 전통을 카자흐스탄 땅에서 되살려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많이 알려진 신문사, 극장 이외에 고려말라디오는 강제이주를 거치면서 방송을 위한 인적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레닌기치와 고려극장 종사인력의 협조로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80년대에 중앙아시아 전역을 방송권으로 하는 고려말라디오가 설립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91년부터 고려말 TV방송이 주 1회 방송됨에 따라 고려인 관련 영상물은 고려인에 의해 직접 제작되어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방송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위인 및 민족문화 관련기관의 활동은 영상물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듯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세대가 중심이었던 시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최고 절정기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구사층의 감소와 현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세대의 증가는 고려인사회의 전통적인 요소 약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고려말라디오와 고려극장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고려인 방송인력 및 예능인의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가어인 카자흐어의 사용 영역 확대는 오늘날 고려인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일보도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어판 중심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고려극장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배우의 부족으로 고려말 연극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한국어가 요구되지 않는 공연 중심으로 젊은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다. 한국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고려말라디오 역시 월 1회는 러시아어로 방송을 시도하였고, 점점더 강조되고 있는 카자흐어 방송 등 변화하는 방송언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언어적인 모국어의 상실 심화와 아울러 1990년대 격변의 시기에 고려인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이 다수 소실되었다. 특히 고려말라디오와 고려말TV의 초기 방송자료들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당수가 보존되지 못했고, 남아있는 방송자료들은 그 소유권이 이제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으로 넘어가, 자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으로 알려지지 못했던 한민족 현대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편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려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개 및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Ким, Г. Н.,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Ата: Наука, 1989)
- Ким, Г. Н., Мен Д. 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Гылым, 1995)
- Корейско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хак(과학)*.”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в науке технике и культуре* (Алматы, 2002)
- Күльбаев, Тлеу & Хегай, Аркадий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об устройстве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Депортация* (Алматы: Дәнекер, 2000)
- Пак Б. Д., Бугай Н. 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2004)
- Olcott, Martha Brill, *The Kazakhs*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 김 게르만, “고난의 재생” 『레닌기치』 1989년 4월 14일.
- 김승화, 「소련한족사」, 정태수 역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 임영상 & 김상철, “중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문화변화,”
『국제지역연구』 제 4권 4호, 2000.
- 황영삼, “모스크바 고려인 3-4 세대의 의식과 생활문화.” 『외대사학』 제 13집, 2000.
- ГАРФ. ф. Р-5546. Оп. 1. Д. 57. Л. 121.
- ГАРФ. ф. Р-9401. Оп. 1. Д. 5442. Л. 85.
- ГАРФ. ф. Р-5546. Оп. 30. Д. 56. Л. 12-33.
- ГАРФ. ф. Р-5546. Оп. 29. Д. 50. Л. 104-105.
- ГАРФ. ф. Р-9401. Оп. 1. Д. 2011. Л. 252-253.
- ГАРФ. ф. Р-9479. Оп. 1. Д. 87. Л. 80.
- ГАТ-КО, ф. 1304, оп. 1, св. 4, д. 11; д. 11-а.
- ГАТ-КО, ф. 1102, оп. 1, св. 5, д. 34, л. 24;
- ГАР-ОО, ф. 293, оп. 2, д. 31, л. 1-7.
- ГАР-ОО, ф. 585, оп. 2, д. 582, л. 27; оп. 2, д. 654, л. 3-6; оп. 4, д.
135, л. 18-20.
- ГАР-ОО, ф. 283, оп. 4, е. д. х р. 31, 35, 41, 75, 148, 173.